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어떻게 대분열을 넘어서야 할까

광주일보에 글을 쓰니까 나를 광주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 특히 SNS에서는 새삼 발견했다는 듯이 친근감을 표시하신다. 그때마다 해명하기도 뭘해서 대중 납간다. 친근하게 여기시면 그 자체로 좋은 것 아닌가?

나는 이른바 색깔 없는 수도권 출신이다. 지역 색깔이 확산했다라면 정치 활동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지지는 물론이거니와 의지할 데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고 아무런 지역 의식이 희석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에서 올라오는 여론이 만만찮은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같이 나눌 것을 찾게 마련이니 동향이란 관계 맺기 수월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단지 동향이라 해서 무조건 지지할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게다가 동향 내에서도 수많은 분화가 일어나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보통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다. 대승적 선

택과 전략적 선택을 능수능란하게 해 온 것으로 유명한 호남도 작금의 대분열 상황은 이전에 목격해 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쪼개져 있거니와 게다가 대표 격인 호남 정치인들이 각기 새로운 당을 추진하는 형국이니, 도대체 호남이 이렇게까지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던 적이 언제 있었던가 싶을 정도다. 지역에 계신 분을 이 정도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한 가지는 선택의 기준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선택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당장 지지를 표명하고, 반대를 표명하고, 설문에 섞여 들어가기 보다는 숨을 골라 보는 것이다. 설마 이 대분열이 계속될 수는 없을 터이다. 가닥이 잡히고 틀이 잡힐 것이

다. 그 과정에서 시러 깊고 분별력 있는 호남 정치인들이 설마 가닥을 잡지 못한 채 해매기만 하겠는가?

공극적인 선택권을 가진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선택의 기준을 다잡아 본다. 그 선택의 기준은 세 가지일 것이다. 첫째, 필성부른가? 둘째, 해결같은가? 셋째, 해낼 것인가? 미래와 과거와 현재(근미래)에 대한 판단이다.

얼마나 믿을 수 있나, 얼마나 미래지향적인가, 그 미래를 이를 의지가 있는가, 능력은 있는가, 힘을 키우고 있는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가, 약속을 중시하는가, 누구를 위한 약속인가, 궁극적으로 정치의 영혼이 담겨 있는가?

정치적 지지에 있어서 언제나 사람 이 지지를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선택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당장 지지를 표명하고, 반대를 표명하고, 설문에 섞여 들어가기 보다는 숨을 골라 보는 것이다. 설마 이 대분열이 계속될 수는 없을 터이다. 가닥이 잡히고 틀이 잡힐 것이

때문이다.

그야말로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시간이다. 도대체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더니 합의문조차 없는 위안부 출속 합의에 이어 북핵 문제는 중국에게 풀어달라고 하고, 경제는 국민이 풀어달라며 대통령이 거리로 나가 서명 운동에 나서는 지경이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일도 하겠다는 기세가 등등하다. 여당은 벌써부터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시키겠다고며 변칙적인 추진을 하면서 180석 이상을 얻겠다고 기세 등등한 판국이다.

대분열의 형국으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안다. 그럼에도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쓰라리지만, 더욱이 기다려 보기로 한다. 어느 개인의 자리 보전이나 어느 특정 세력의 힘 유지가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승적인 동력이 대세로 자리하기를 진심으로 기다린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또 믿어 본다.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의료칼럼

상호 존중의 미덕



이 여 일 시열병원 명예원장

40년이 넘게 의사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위중한 환자를 대할 때는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좋은 소리’보다는 ‘진솔한 소리’로 일관해 왔다. 이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못 미더워 다른 의사를 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내 진솔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환자나 보호자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환자와 의사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다.

몇 년 전 의과대학 교수를 정년 한 뒤, 많은 후학을 만나면 ‘소통’의 중요성을 습관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나의 과거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대인관계에서 소통의 원활과 상호 존중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영어로 ‘have to’와 ‘Please’의 차이에 대해 비교하고, 현대인의 바람직한 언어 사용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have to’는 ‘must’와 같은 의미이며, 우리말로 ‘~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언어적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단어에 몰입된 성격의 소유자는 상대방을 대할 때 항상 하인이나 종처럼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하며,

상대는 이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본인이나 매사에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 때문에 짜증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 두 사람간의 대인관계는 불만과 불평으로 얼룩지게 된다. 이에 반해 Please를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을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라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바른 태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만약 당신이 ~을 이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인가.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대상이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로써 세상을 더욱 밝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위의 두 표현의 차이는 너와 내가 둘 중에 누가 더 대접받아야 하는지의 관점에 달려있다. 나보다는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느 표현을 쓰게 될 것인지 생각해볼만 할 것이다. 예전에 학교나 학원에서 영어회화를 배웠던 경험을 기억해보면 늘 Please가 강조됐던 것도 여기에서 연유했다고 생각한다.

암웨이의 공동 창업자인 리치 디보스도 요즘의 키워드인 서로의 소통에 있어 존경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 점이 결여되면 마음을 열지도 않고 필요한 정보도 나눌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아가 데미상 수상자인 워런비티는 상호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보다 느낌이 더 오래 기억된다고 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받고 있을 때 비로소 친근감을 느끼고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한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리더들의 평가에서는 ‘소통’의 부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리더의 자리가 어려운 것은 남들이 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과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미래 예측 불가능한 것조차도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선택해 선출한 리더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이 삭막한 사회적 현실에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답답한 현실을 책망하기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말하는 습관과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시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실·국을 비롯해서 문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업 시스템을 가동한다. 그동안 ‘금남로 차 없는 거리’와 금남공원 야외공연, 창장로축제 등 각종 행사가 산발적으로 전개돼 ‘문화전당 효과’를 거두는 데 한 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를 위해 총괄 부서, 관련 부서, 전문가, 유관기관 간 협업 태스크포스(Task Force :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문화전당 주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 및 전시는 하나로 묶어 열린 축제인 가칭 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아마추어에서 전문 예술단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시는 책 임관(문화도시정책관)과 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문화·관광·도시 디자인 등 관련 부서와 문화전당, 아시아문화

社說

원산지 미표시 일본 수산물 유통 뿌리 뽑아야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나섰다. 하지만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저가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수산물 유통은 설 대목을 앞두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도내에서 최근 4년간 수산물 원산지 위반은 2012년 36건에서, 2013년 46건, 2014년 57건, 2015년 66건으로 매년 10건 이상씩 늘고 있다. 이중에 원산지 허위 표시 사례는 없었으나 5만 원~10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원산지 미표시가 많았다.

문제는 미표시의 대부분이 일본산이라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외면하자 국내산보다 싼 가격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이다. 미표시 수산물은 농어·문어·갈치·돔을 비롯해서 꽃게·명태·숭어·장어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특히 최근 보성산 등 국내 꼬막 가격이 오르면서 일본산 꼬막이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팔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수·완도·무안 등 수산물 거래 규모가 큰 지역에서 일본산이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일본산 수산물이 불법으로 다량 소비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수도 있는 수산물이 정밀 검사 없이 식탁에 오를 경우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을 감추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우리 수산업계의 정상적인 시장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당국은 설을 앞두고 관계 기관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 현장에서 발견되는 대로 물량을 수거하는 한편 통관 절차와 유통 구조까지 파악해 근본적으로 일본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야 할 것이다.

주목되는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사업

광주시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실·국을 비롯해서 문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업 시스템을 가동한다. 그동안 ‘금남로 차 없는 거리’와 금남공원 야외공연, 창장로축제 등 각종 행사가 산발적으로 전개돼 ‘문화전당 효과’를 거두는 데 한 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를 위해 총괄 부서, 관련 부서, 전문가, 유관기관 간 협업 태스크포스(Task Force :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문화전당 주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 및 전시는 하나로 묶어 열린 축제인 가칭 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아마추어에서 전문 예술단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시는 책임관(문화도시정책관)과 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문화·관광·도시 디자인 등 관련 부서와 문화전당, 아시아문화

원, 문화재단, 예총, 민예총,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들로 TF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 인근에서 연중 주말 상설 공연 및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실 이번 광주시의 TF 구성은 때늦은 감이 있다. 지난 2004년 착공된 문화전당은 랜드마크 논란과 옛 도청 별관 철거 등으로 공시 개관까지 약 11년이 소요됐다. 이는 곧 광주시가 문화전당 개관에 앞서 이와 관련된 TF 구성과 전당 주변 활성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다는 의미

다. 문화전당의 공사 지연을 탓하면서 시 차원의 대응 전략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주관 부서인 시 문화정책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도 없지 않다. 하지만 시적이 반기라고 했다. 광주시는 민·관 협업 체계가 문화전당과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는 구성체가 되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워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기고

스포츠가 주는 선물



김 응 식 조선대 체육대학 명예교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개인이나 집단 모두 한결같이 희망찬 계획과 다짐으로 활기차다.

스포츠를 관리하는 조직들도 특별한 변화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훼손된 스포츠 정신의 본질을 복원하고 시대의 변화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알뜰한 계획과 시행방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는 B.C. 1000여년 전부터 정치집단의 지원을 받아 성장해 온 문화이다. 정치가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때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 행복을 누렸다. 그렇지 않을 때는 타락했으며 피폐한 문화로 전락했다. 후기 로마가 그랬고 산업혁명 이후 유럽이 그러했으며 지금도 스포츠 현장에서 비열비체하게 발생하는 폭력과, 속임수, 도박과 약물복용 등이 그것이다.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는 본래 한

조직에 있었고 기능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권력집단의 리더들이 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분리 시켰으며 뒤늦게 잘못된 일이 있음을 깨닫은 정부는 두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스포츠 자체의 발전 방향보다는 권력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 같아 어쩔지 씁쓸하다.

엘리트스포츠는 생활스포츠의 보급자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성공확률이 높다.

할아버지와 손자까지 가족이 중심을 이루어 참여하면 문화와 관습이 유지되고, 율리와 도덕이 성장의 기틀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운동소질(운동신경이 근육을 지배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견돼 엘리트스포츠 선수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다.

정부는 국가의 동력을 강화하고 보전하기 위해 스포츠 집단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스포츠에는 운동장과 지도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엘리트스포츠는 청소년의 미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도과정이 필수적이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트레이닝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도 종목별로

필요하다. 엘리트스포츠는 훈련량과 강도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스포츠의 소질(운동신경이 근육을 지배하는 특별한 능력)은 청소년들의 성장기에 생성되고 또 소멸하기도 한다. 유전의 속성이 매우 강한 부모의 특별한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 내내 청소년들을 지켜봐주고 소질 성장 점정까지 이러한 스포츠의 소질이 소멸하지 않은 사람만이 엘리트스포츠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여야 하고 인간으로서 거의 감내하기 어려운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비로소 열매를 얻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선진국들은 생활스포츠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별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아직도 무작위로 선택되고 검증받지 못한 지도방법이 많은 부분에서 차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학부모와 지도자들은 성공한 스포츠스타의 내면에 있는 특별한 소양은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화려한 명성과 달콤한 보상만을 본다. 이런 시각이 청소년들을 좌절시키고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제 대한민국 스포츠가 큰 틀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스포츠 관리의 주체들이 수행해야 할 진정한 임무는 뒤로하고 조직의 ‘허장성세’만 강화하려 하는 일이다. 생활스포츠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스포츠를 통해 재충전과 새로운 에너지 생성이 가능하도록 힘써야 하며, 특히 가족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속에서 성장한 엘리트스포츠 스타선수를 자연스럽게 엘리트스포츠 조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엘리트스포츠 스타선수 한 명이 그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엘리트스포츠는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처럼 그 동력을 경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잠금장치가 허술하면 인간성을 말살시켜 그 사회를 타락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순기능으로 작용하면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단합시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상승시킨다. 또 많은 사람이 자부심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지금은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에 관련된 주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잘 성찰해 봐야 할 시기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양 주체들이 본연의 임무를 정비하여 시민 곁으로 다가 갈 때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 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6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절판된 책을 에타게 찾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겐 신영복의 영인본 ‘염서’가 오랫동안 눈에 아른거리는 책이었다. 아마도 그의 ‘갑육으로부터의 사색’을 접한 이라면 ‘염서’에 대한 갈증이 꽤 컸을 게다.

출소 직후 그의 친구들은 ‘20년, 어둠 속의 유일한 공간이던 염서와 그 작은 염서를 천 근의 무게로 만드는 깨알 같은 글씨들’을 마주하고 충격을 받았다. 염서 한 장씩을 받아든 친구들은 영인본을 제작해 한 권씩 나눠 갖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1993년 이들과 부르기 위해 ‘염서’를 만들었다.

절판된 책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출판사에 연락하는 일이다. 하지만 출판사 ‘너른마당’은 문을 닫은 후였으니 막막했다. 어느 날, 알고 지내는 이의 집에서 우연히 그 책을 발견했다. 은갖 감언이설에 금전적 보상까지 약속하며 책을 얻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일단 빌려와 일독했다. 꼭꼭 눌러 쓴 속필과 삽화는 그냥 활자로만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안겨 주었다. 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반납했던 기억이 있다.

‘염서’ 중 ‘갑육으로부터의 사색’ 조판에 실리지 않은 ‘청구회의 추억’(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이란 글이 기억에 남는다. 1966년 서오름으로 소송을 걸던 스텔일곱살의 신영복은 거기서 만난 여섯 명의 어린이들과 ‘청구회’를 만들었다. 매일 한 차례 장중체육관 앞에서 만난 이들은 10원씩 모아 저축도 하고, ‘로빈후드의 모험’ 등 대담한 권식 책을 읽고 이야기기도 하며 우정을 쌓아 간다.

2년이 지나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그는 ‘청구회’ 조직 목적과 구성원을 대라는 심문을 받는다. 또 아들과 부르기 위해 ‘염서’를 만들었다.

그는 ‘청구회’ 조직 목적과 구성원을 대라는 심문을 받는다. 또 아들과 부르기 위해 ‘염서’를 만들었다.

그는 ‘청구회’ 조직 목적과 구성원을 대라는 심문을 받는다. 또 아들과 부르기 위해 ‘염서’를 만들었다.

신영복과 염서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